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4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제 35호)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 (제35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아름다운 봄의 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 07 / 봄철 나들이 뢰방꾼, 황사와 미세먼지
- 09 / 더 정확한 기상관측의 첫걸음, 기상관측표준화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9 /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5 /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41 / 2024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 42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45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46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4년 5월 31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장은석(예보과), 임나영(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병국(예보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현정(기후서비스과), 남민우(관측과), 박수경(예보과)

박현진(기후서비스과), 박형진(예보과), 서유미(기후서비스과), 심준수(관측과), 이상진(예보과)

이정섭(관측과), 이지훈(기후서비스과), 이진화(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임나영(관측과)

장은석(예보과), 조현지(관측과), 허자윤(관측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남씨유, 저각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을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아름다운 봄의 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 차는 시기가 왔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며 공기마저도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 차는 시기가 왔다.

봄에는 겨우내 강하게 유지되던 시베리아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화하고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한다. 이때 찬바람 대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햇볕을 받아 피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아름다움에는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숨어있다. 바로 꽃가루이다.

꽃가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소중한 선물 중 하나다. 바람에 날리며 식물들의 생식과 생존을 도와 우리에게 음식물과 산소를 제공하고 다른 식물에 전달되어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고 다양성이 유지되는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꽃가루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꽃가루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꽃가루를 들이마실 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인 ‘꽃가루 알레르기’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곤 한다. 꽃가루는 수목류, 잡초류, 잔디류로 구분되는데 봄철에 꽃가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공기 중으로 퍼뜨리는 수목류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 소나무, 참나무 등이 증상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 지역에 어떤 나무가 식재돼 있는지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기상 조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뜻한 기온은 식물의 개화와 꽃가루 생산을 촉진해 봄철에 꽃가루의 양이 증가하고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꽃가루의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가벼워져서 공기 중에 떠다닐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꽃가루가 멀리 퍼지고 공기 중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반면 강수는 꽃가루를 공중에서 지상으로 낙하시켜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강수 후에는 공기 중의 꽃가루 농도가 다시 증가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따뜻하고 건조하며 바람이 불고 강수가 없는 날에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일기예보를 수시로 살펴보는 등 기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꽃가루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기상청 날씨누리 생활기상정보를 통해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인 소나무와 참나무의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또 국립기상과학원 누리집에서는 꽃가루 날림정도를 '조금', '흔함', '많음', '매우 많음' 4단계로 구분한 '꽃가루 달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꽃가루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상청 꽃가루 정보를 확인한다면
건강을 지키면서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을 것

아름답고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왔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꽃도 아름답지만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꽃내음도 맡을 때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꽃가루 정보를 확인한다면 건강을
지키면서 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봄이 모두에게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



봄철 나들이 휘방꾼, 황사와 미세먼지

국경을 초월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

올해도 어김없이 새싹이 움트고 따사로운 햇살이 마음을 설레게하는 싱그러운 계절, 봄이 왔다. 전령사 매화를 시작으로 진달래, 벚꽃에 이어 철쭉까지 활짝 피어나는 자연의 축제를 아낌없이 즐길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에 올해 첫 황사가 관측됐고, 지난 29일에는 전국적으로 최악의 황사가 관측됐다. 특히 이날 중부 지방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와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져 미세먼지 경보까지 발령된 곳도 있었다. 이렇듯 황사가 있는 날은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는 경우가 많아 즐거운 나들이 기회를 빼앗기곤 한다.

황사는 삼국사기와 같은 옛 문헌에도 기록돼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자연현상이다. 사막이나 황토 지대에서 저기압의 강한 바람에 날려 올라간 흙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며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 혹은 그 흙먼지를 말하며, 황사의 주성분은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알칼리 성분이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발원지의 땅이 녹아 흙먼지가 떠다니기 쉬운 상태가 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황사가 발생하면 시야가 뿌예지고 심한 경우 하늘이 황갈색으로 보이며 주변에 쌓이기도 한다.

최근 황사와 더불어 국경을 초월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μ 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입자크기에 따라 10 μ m 이하는 미세먼지(PM-10)로, 2.5 μ m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흙먼지, 꽃가루, 화산재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주로 산불이나 쓰레기 소각,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연소를 통해 배출되며 배출된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이차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등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의 유해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황사와미세먼지의발생원인과성분은 다르지만 관심을 두고 주의해야 할 현상이란 점은 동일하다.

이 현상들은 태양 빛을 산란시켜 대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농작물 등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동상 등 조형물을 부식시키기도 한다.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가 황사에 섞이면 문제는 더 커진다. 눈병, 알레르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초미세먼지는 코점막에 걸러지지 않고 혈관, 폐까지 들어가 천식이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게 한다.

황사와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다. 외출 시에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기관지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을 수시로 마셔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도 지키고, 봄의 향연도 즐기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적의 사정을 알고 대비하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자세를 지닌다면 두 혜택 모두를 피해 봄꽃 구경을 즐길 수 있다.

기상청 날씨누리과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대기질 정보와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보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해 보자. 건강도 지키고 봄의 향연도 즐기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 정확한 기상관측의 첫걸음, 기상관측표준화

이상기후현상 빈번,
기상관측자료 정확성
더욱 중요해져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하루 동안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졌다. 매우 건조한 사막 기후 지역인 두바이에 1년 치 강수량에 해당하는 많은 비가 하루 만에 내린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7월 14일 충남 부여 지역에는 하루에 272.5mm의 이례적인 호우가 쏟아졌다. 이는 부여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2년 이후 두번째로 많은 일강수량 기록이다.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관측자료는 위험기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예보의 근간이다. 2007년 기상청이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기예보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의 기여도는 수치예보모델 성능 40%,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32%, 예보관의 역량 28% 순이었다. 이처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은 기상예보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같은 관측장비로 관측해도 관측환경 기준이 상이하면 관측값이 다를 수 있어 관측환경의 표준을 정립했다. 세계기상기구(WMO)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에 따라 관측환경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우수한 환경에서 관측장비가 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측단위에 대한 표준을 마련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관측장비 운영 기관마다 강수량 단위가 다르다면 자료는 신뢰성을 잃기에 기온, 강수량 등 기상요소마다 관측단위와 마지막 자리 소수점단위를 통일시켰다.

마지막으로 관측 용도로 사용되는 기상관측장비는 기상청의 ‘형식승인’을 통과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측기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형식승인이란 기상측기에 대해 안정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365일 운영되는 기상측기가 도서, 산악, 해안 등 여러 외부 환경에서도 관측 품질을 유지하도록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정은 기상측기의 구조·규격과 성능 등이 형식승인한 대로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측기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기상청은 기상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인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센터에서는 형식승인과 검정 업무가 종합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한국인정기구(KOLAS)의 교정·시험 기관 시설로 운영돼 국제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것이다.

기상·지진 장비의 성능과 품질의 향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믿을 수 있는 기상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기상예보를 생산 할 것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 즉 표준규격 설정과 형식승인, 검정제도 등을 통해 관측장비의 정확도와 안정성, 관측자료의 신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기상관측자료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기상예보를 생산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해 나가는 기상청의 힘찬 발걸음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 제39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4.3.12.

대전지방기상청
산불 대응 모의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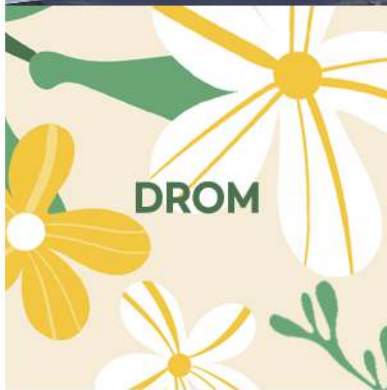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응하고, 산불 현장 재난 지원 역량 강화와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을 통해 산불 발생 단계별 운영 체계 및 역할 수행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또한, '23년 금산(대전) 대형산불 발생지점인 장태산 일원에서 기상관측 차량을 이용한 현장 기상지원과 특별관측 훈련을 실시하였다.



2024.3.21.~3.24.

세계기상의 날 기념 영향예보 대국민 홍보 추진



대전지방기상청은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에 설치된 기상청 기념행사장에서 ‘영향예보’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관련 리플릿을 비치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영향예보와 위험기상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에 국민들의 폭염 피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2024.3.21.~3.24.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기상관측차량 부대행사 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국민 소통 및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개최된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장에 기상관측차량으로 부대행사를 지원하였다.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 기상관측차량 및 기상장비를 전시하고 기념식 행사 종료 후 고층 관측을 시연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상관측차량을 알리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3.21.

2024년도 상반기 기상가족오락관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직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상가족오락관을 운영하였다. 특별히 세계기상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한 '24년도 상반기 기상가족오락관은 각 부서를 팀으로 하여, 병뚜껑 튕기기, 훈민정음(초성게임), 몸으로 말해요 3가지 게임으로 대결을 벌였다. 대결 결과 1등은 예보과가 차지하였다. 간단한 활동을 통해 함께 웃으며 서로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다.



2024.3.21.

2024년도 상반기 마켓캐롯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자체 나눔 바자회 ‘마켓캐롯’을 개최하였다.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총 92개의 물품을 기증 받아, 21일 기증 받은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운영 결과, 총 53개의 물품이 판매되었고 178,200원의 수익을 내었다.

바자회 수익금은 대전시 소재의 사설 유기견보호소에 헌이불 등과 함께 대전지방기상청 명의로 전액 기부하였다. 자연스러운 기부문화 확산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기여한 마켓캐롯은 하반기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2024.3.23.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세계기상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후행동의 최전선에서’라는 주제로, WMO 사무총장의 축사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탄소중립, 기상날’을 활용한 4행시 공모전에서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4행시 공모전 수상작 16점을 전시하고, 기상이와 사진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상·기후변화 이해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2024.3.26.

충남북부앞바다 특정관리해역 분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북부앞바다 특정관리해역(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분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3월 26일 3개 해양관계기관(대산지방해양수산청, 태안해경, 태안군청)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수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였다.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내 기상차이로 인한 특보구역의 분리 필요성과 각 관할 구역의 해상 특성 등을 공유하고, 최적의 해상특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상안전 지원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4.3.27.

세계기상의 날 기념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 공동 세미나(1차)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3월 27일 기후변화업무를 담당하는 충남권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 공동세미나(1차)’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권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확산과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에 대한 전문가 강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대전지방 기상청은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충남권의 기후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4.4.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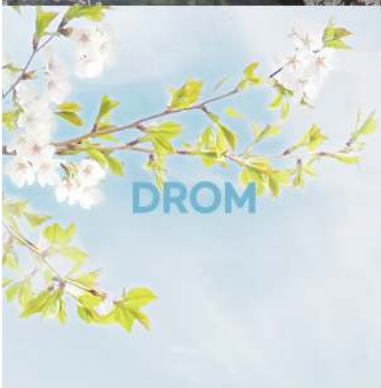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
나의 깐부 찾기



대전지방기상청은 8~9급 직원을 대상으로 마니또 프로그램인 ‘나의 깐부 찾기’를 운영하였다. 3월 28일 제비뽑기를 통해 마니또를 선정하고, 4월 한달간 마니또 이름으로 삼행시, 좋아하는 글귀 선물, 나에게 대한 힌트 제공 등 4번의 미션(마니또 활동)을 수행하였다. 활동을 마친 이후에는 나의 깐부가 누구인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운영 결과, 22명의 참여자 중 19명이 미션을 완수하였고, 18명이 깐부를 찾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변 동료들을 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2024.4.2., 4.5.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벚꽃 군락지 개화 및 만발 계절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 · 세종 · 충남지역의 대표 벚꽃 군락지로 공주 계룡산을 지정하여 매년 개화 현황을 관측하고 있다. 계룡산 국립공원 치안센터 맞은편 벚나무 3그룹을 기준으로 올해 개화(4월 2일) 및 만발(4월 5일)을 관측했다. 개화는 작년보다 7일 늦었고, 만발은 6일 늦게 관측되었다. 봄꽃 개화 현황은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2024.4.3.~5.14.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현장답사

대전지방기상청은 예보구역의 지형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예보기술 및 위험 기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현장답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현장답사는 연구개발과제 연구원으로 구성된 4개의 팀으로 운영되며, 위험기상 발생지역과 관측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특성과 환경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4.4.4.

제79회 식목일 행사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 심기와 가꾸기에 동참하였다.

20여 명의 직원이 식목일 행사에 참여하여, 청사 화단의 바위와 잡초 등을 정리하고, 연산홍 묘목 200주를 청사 정원과 화단 곳곳에 심었다. 이번 식목활동이 단순히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가꾸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제12회 충남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신청일시
24. 04. 05.(금)
~ 06. 14.(금) 18:00

2024.4.5.~6.14.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충남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동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충청남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제12회 충남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기상·기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상·기후와 타분야를 융합한 기상산업 등을 선정하여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기상기후정보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임을 알리고 충남권 기상기후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4.15.

대용량기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 1차 대전청 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최근 고도화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데이터 분석 역량이 중요해지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직원들의 기상자료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제 1차 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23명의 내부직원이 참여했으며, 온라인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을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은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직원별 대용량기상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해 향후 대전지방기상청 지역 예보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4.18.

대전지방기상청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논산시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기상조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상정보와 대기화학모델 결과를 반영한 모델링 시스템과 영향정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술개발, 내년 고도화 추진 후 수요기관인 논산시에 기술이전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환경 관련 정책의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4.18.~5.14.

여름철 방재기간 대비 기상관측시설 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간을 대비하여 ASOS 8지점과 AWS 8지점의 기상관측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관측장비의 정상작동 유무와 관측환경을 점검하고 관측장비 관련 시설물 손상, 균열 여부 및 전원과 통신장애 요인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을 통해 여름철 방재기간 동안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여 기상관측 자료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4.4.19.

대전지방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관측기관 기상관측표준화 담당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9일 홍성기상대에서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등급을 개선하여 관측자료 품질을 높이고 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전지방기상청은 각 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024.4.20.

「제54회 지구의 날 기념 행사」 기후업무 홍보 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4월 22일 지구의 날 및 기후변화주간(4.22.~4.28.)을 맞아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제54회 지구의 날」 기념 행사에 기후업무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이 홍보부스에서는 기후행동 다짐 배지 만들기, 태양광 꿀벌 만들기, 나만의 캐릭터 우산 만들기 등 다채로운 기후변화 관련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고, 약 300여 명의 학생 및 지역민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기후변화 관련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에 기여하였다.



2024.4.21.~4.28.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기후변화주간 특별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과학의 달을 맞아 지구의 날(4.22.)과 연관시킨 기후변화주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샌드아트 '지구를 지켜라' 공연과 체험, 코너 속에 코너 '특별 기상탐험 특공대'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상탐험 특공대원들은 구름 찾기, 기후 행동 등 5가지 미션을 완주 후 상품을 수령하고, 탄소중립 나무에 실천 메시지를 부착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증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2024.4.26., 5.9.

기상관측장소 유지관리(잔디관리) 안전보건 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2024년도 기상관측장소 유지관리(잔디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잔디관리를 위해 예초작업을 수행할 때 보호 안전장구 착용을 강조하였고 나일론 커터날 사용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유해 동물(뱀, 말벌 등)의 출현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당부하였다. 잔디관리 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며 안전보건 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였다.



2024.4.26.

「2023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 기후특성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2023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기상기후보고서에는 연기후특성, 계절별 기후특성, 이상기후 분석, 월별 이상 고온·이상저온 발생일수, 외연도 해양기상기후특성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최근 기후변화 경향과 기후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기후변화 정책 수립시 과학적 기반의 기후정보자료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4.26.~4.27.

봄 사이언스데이 체험형 과학 콘텐츠 행사 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4월 과학주간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제고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봄 사이언스데이에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였다. 국립중앙과학관 야외 광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휴대용 기상관측장비와 고층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하여 기상관측 원리를 설명하고, 기상관측 차량 및 기상관측용 드론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기상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4.4.29.~4.30.

대전지방기상청 청렴·소통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소속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직원 간 공감·소통 역량 증진을 위해 충남 보령시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총 33명의 직원이 참석한 워크숍 첫째날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청렴인문학 특강을 듣고, 캘리그래피(찾아오는 문화교실 1차)를 통해 나만의 청렴 다짐문구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서천 국립생태원과 장항 스카이워크를 탐방하며 직원 간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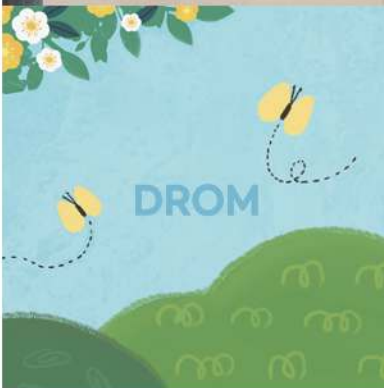
이것은 회의록 또는 설문지 형태의 문서입니다. 상단에는 제목과 날짜가 표시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여러 줄의 텍스트와 선택지(예: 예, 아니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작성자 정보(이름, 직책, 부서)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4.5.2.

대전·세종·충남지역
언론인 소통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름철 위험기상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기상정보 통보사서함 활용법, 3개월 기상 전망을 공유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폭염 영향예보 등 주요업무 소개를 통해 언론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청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2024.5.8.

관측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측기술세미나 개최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식 공유의 장인 제1차 관측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봄철 특이기상인 건조와 황사, 우박 현상이 발생했을 시 관측주안점과 유의점, 모니터링 방법을 발표하고 토의하였다. 또한, 관측과의 주요 직무인 지상기상 관측업무에 대한 소개와 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 분야의 역량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 2차, 제 3차 관측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5.9.

「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방재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여름철 위험기상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5월 9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방재기상 업무 협의회에는 10개 기관이 참석하였고, 기상청 주요 예보정책 변경사항, 지난 여름철 기후특성 및 3개월 기상전망, 기상관측표준화 및 공동활용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간 방재대책 및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을 대비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4.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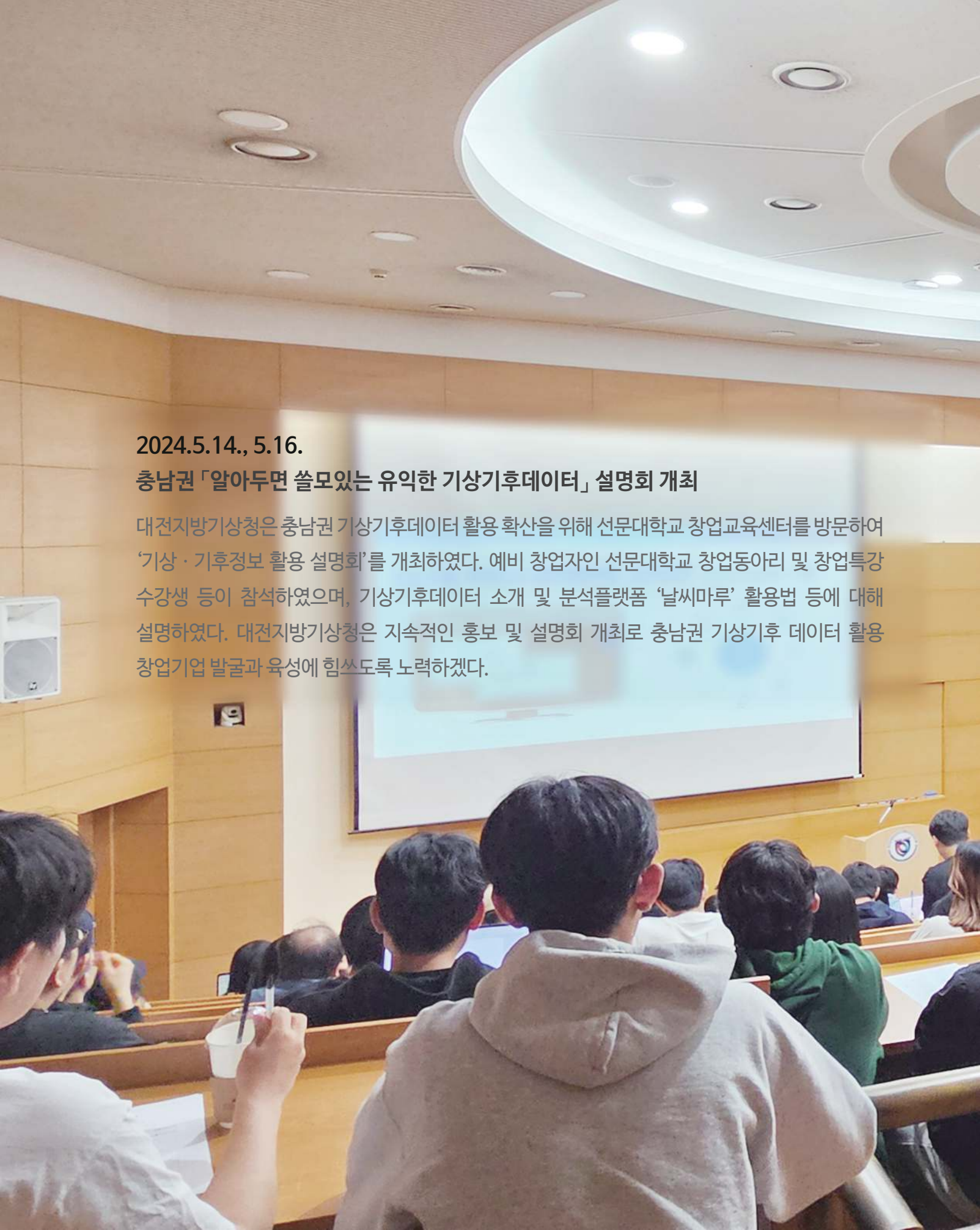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어린이날 특별행사 「모여 봄! 놀아 봄!」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우천으로 일주일 늦은 5월 12일 ‘어린이, 어른이 모여 봄! 놀아 봄!’ 이란 제목으로 개최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어린이를 위한 에어 바운스, 바이킹 등 5가지 놀이기구와 기상기후 체험부스 뿐만 아니라, 홍성군 가족센터 등 지역 기관도 동참하여 세계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 부모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방문하여 함께 즐기므로써 기관 인지도 상승과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

2024.5.14., 5.16.

충남권 「알아두면 쓸모있는 유익한 기상기후데이터」 설명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선문대학교 창업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기상·기후정보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예비 창업자인 선문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창업특강 수강생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상기후데이터 소개 및 분석플랫폼 '날씨마루' 활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회 개최로 충남권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2024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개나리



발아

- 3월 15일
- 작년대비 2일 늦음
- 평년대비 3일 빠름



개화

- 3월 20일
- 작년대비 3일 늦음
- 평년대비 6일 빠름



만발

- 3월 25일
- 작년대비 4일 늦음
- 평년대비 6일 빠름

진달래



발아

- 3월 6일
- 작년대비 7일 빠름
- 평년대비 13일 빠름



개화

- 3월 17일
- 작년대비 1일 늦음
- 평년대비 12일 빠름



만발

- 3월 21일
- 작년대비 1일 늦음
- 평년대비 12일 빠름

벚꽃 군락단지(계룡산)



개화전

- 3월 6일 촬영
- 구름많음 / 11.1℃



개화

- 4월 2일 촬영
- 구름많음 / 24.9℃
- 작년대비 7일 늦음



만발

- 4월 5일 촬영
- 구름많음 / 12.7℃
- 작년대비 6일 늦음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3

MARCH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 23. 금산 4위 15.2°C, 세종 2위 14.5°C
- 3. 24. 서산 3위 14.9°C, 부여 4위 15.1°C, 홍성 5위 14.1°C, 세종 4위 14.3°C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 3. 2. 천안 4위 - 9.5°C, 세종 1위 - 8.0°C, 홍성 2위 - 7.2°C
- 3. 24. 부여 3위 10.5°C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 24. 서산 5위 22.4°C, 보령 5위 21.6°C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 22. 보령 5위 15.2m/s, 세종 3위 9.7m/s, 홍성 4위 12.6m/s
- 3. 29. 금산 1위 16.4m/s, 세종 2위 9.8m/s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3. 26. 금산 2위 31.5mm, 홍성 2위 20.6mm, 세종 2위 19.0mm

4

APRIL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4. 14. 보령 5위 18.8°C, 홍성 1위 18.6°C, 세종 5위 19.7°C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4. 3. 천안 2위 13.3°C, 금산 5위 11.6°C, 홍성 2위 12.9°C, 세종 2위 12.6°C
- 4. 4. 천안 4위 12.6°C, 세종 3위 12.4°C

4

APRIL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4. 13. 대전 5위 28.4℃, 부여 5위 28.0℃, 세종 1위 27.8℃, 홍성 5위 27.1℃
- 4. 14. 대전 2위 29.3℃, 보령 2위 26.7℃, 서산 3위 26.9℃, 세종 2위 27.6℃, 홍성 3위 27.4℃

10분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4. 15. 부여 3위 5.8mm, 세종 2위 3.1mm, 홍성 4위 3.1mm

1시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4. 15. 부여 4위 15.4mm, 보령 5위 16.4mm, 세종 2위 6.8mm, 홍성 4위 9.5mm

5

MAY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5. 5. 금산 2위 17.7℃, 세종 2위 16.5℃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5. 3. 세종 4위 27.7℃
- 5. 4. 세종 2위 28.1℃
- 5.19. 세종 4위 29.1℃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5. 5. 보령 5위 44.9mm, 홍성 1위 55.6mm, 세종 2위 52.9mm
- 5. 7. 세종 5위 15.5mm

기후계절

2023년 마지막 눈	3. 3.(작년대비 33일 늦음, 평년대비 15일 빠름)
2023년 마지막 얼음	3. 21.(작년대비 18일 빠름, 평년대비 12일 빠름)
2023년 마지막 서리	3. 31.(작년대비 27일 빠름, 평년대비 4일 빠름)

동물계절

나비 초견	3. 18.(작년대비 3일 늦음, 평년대비 20일 빠름)
빠꾸기 초성	3. 31.(작년대비 49일 빠름, 평년대비 48일 빠름)
잠자리 초견	4. 17.(작년대비 22일 빠름, 평년대비 71일 빠름)
제비 초견	5. 17.(작년대비 13일 늦음, 평년대비 33일 늦음)

※ 홍성: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4. 5.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옹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